

Project Exhibition

2021년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 기획전시

1

기획전시

Project Exhibition I

PHOTO WALL PROJECT

Seomun Market Station Exit 1

포토월 프로젝트 - 서문시장역 1번 출구

2021년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는 With COVID-19 시대에 대응하는 초대형 야외사진전을 기획했다.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서문시장역 교각'에서 시작하여 코로나19 거점 병원인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근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청라언덕'을 지나 '3.1운동 계단'에 이르는 길까지 이어진다. 대구를 모티브로 한 국내외 작가들의 작업은 대구에 대한 다층적인 시각을 보여 준다.

2

기획전시

Project Exhibition II

Heroes 2020

히어로즈 2020

혼동과 고통이 뒤섞인 현장 속에서 COVID-19에 맞서 지금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봉사와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전시이다.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대구안전소방본부, 대구의사회, 골든타임응급환자송신센터 등에서 직접 찍은 사진으로 생생한 현장을 느껴보고자 한다.



대구 중구 「근대로의 여행 - 골목투어」

[동산청라언덕], [3.1만세운동길(쌈지공원)]

두 곳에서 오프라인 스탬프를 찍어오시면

대구문화예술회관 현장 티켓 발매 시,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1 Tanaka Eren

전시장소 3호선 교각

Tanaka Eren - 2지구 3층 616호

서문시장 2지구 화재 몇 년 후, 새로운 곳에서 2지구는 빛나고 있었다. 저마다의 색채와 개성을 가진 그 공간들은 가게 주인들의 또 다른 얼굴이다.



3 Julia Fullerton-Batten, 이정록, 장용근

전시장소 응급실 외벽

3-1 Julia Fullerton-Batten
- LOOKING OUT FROM WITHIN (2020)

지난 몇 주 동안, 3일마다 한 번씩, 집에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2 권도연, Ádám Urbán

전시장소 주차장 건물

2-1 권도연 - 북한산 (2019)

주택가의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개들이 산으로 들어갔다. 북한산으로 간 들개들을 2년간 사진으로 기록했다.



3-2 이정록 - 산티아고 23

빛과 어우러진 자연을 통해 바쁜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근원적인 에너지와 함께 신비로운 경향을 선사하고자 한다.



2-2 Ádám Urbán - 유령도시

투자에 실패된 건물 구조의 일부만 남은 유령 도시. 콘크리트 몸통 아래에는 대출 은행의 돈뿐만 아니라 수십억 개의 건설 회사도 묻혀 있다.



3-3 장용근 - 새부리가면

이제 일상이 되어 버린 마스크. 페스트가 유행할 때 착용했던 새부리가면처럼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새부리가면'의 오류를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다.



4 장남원, 이정록

전시장소 응급실 외벽

4-1 장남원 - Humpback Whale

술한 난관과 까다로운 촬영 조건을 극복하고 탄생한 고래 사진을 통해 생명의 경이로움,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길 바란다.



4-2 이정록 - Luca 31

5 Szilvia Mucsy

전시장소 건강증진센터 외벽

Szilvia Mucsy - HOME

HOME은 서로 다른 집, 호텔 객실, 임시 숙박 시설에 대한 개인 다큐멘터리이다.



6 나현철

전시장소 주차장 입구

나현철 - 선사투시도

대형 공사 현장에 있는 조감도와 투시도, 현재의 건축물이 언젠가는 선돌, 고인들의 역할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붉은 벽돌과 공구 재료는 주거와 사유 재산의 의미를 강조한다.



7,8,9

김현수, 광범석, 나현철, 이동욱, 윤정미, 장용근
Tanaka Eren, Julia Fullerton-Batten, Axel Braun

전시장소 야외 주차장

김현수 - 양화소록

도시 속 잘 다듬어진 인위적인 형태를 통해 동시대 현대인들의 획일화된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다.



- 광범석 - 이상화 시리즈
- 나현철 - 선사투시도
- 이동욱 - Sense Of Guilt
- 윤정미 - It Will Be A Better Day
- 장용근 - 새부리가면
- Tanaka Eren - 2지구 3층 616호
- Julia Fullerton-Batten - LOOKING OUT FROM WITHIN (2020)
- Axel Braun - 불안한 조화 [인류세 풍경]

10 박창모, 김경란 외 72명

전시장소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구)어린이집

10-1 박창모 - 2020 봄

다시 맞이할 평범한 일상의 봄날을 기약하며, 자신을 희생하면서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코로나19 의료진들의 희생정신을 담았다.



히어로즈 2020

10-2 김경란 외 72명 - 중환자실

COVID-19에 맞서 지금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봉사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전시



11 박민우, 노진규

전시장소 목공실

11-1 박민우 - 대구 달성공원

유제를 만들고 유리판에 도포하는 '유리건판 필름' 과정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물에 감동을 느낄 수 있다.



11-2 노진규 - 역사초상 시리즈

대구의 대표 인물 서상돈, 이상화, 이인성을 작업을 통해 소환한다. 입체적이고 회화적이며 이미지에 생명력을 넣는 과정을 통해 인물들의 정신을 표현한다.



12 이동욱

전시장소 목공실

이동욱 - Sense Of Guilt

바비 인형들을 통해 사람들의 이중적인 시선과 심리를 지적한다.



13 장남원 - Humpback Whale (*라이트박스)

전시장소 선교사주택

14 Axel Braun

전시장소 선교사주택

Axel Braun - 불안한 조화 [인류세 풍경]

인프라 프로젝트와 위협받는 생태계의 역사에 대한 사례 연구 모음으로 구성된다.



15 나현철 - 선사투시도 (*라이트박스)

전시장소 의료선교박물관

16 권현진

전시장소 의료선교박물관

권현진 - Visual Poetry (*라이트박스)

자연의 내용을 비워가는 추상화가 아니라 그 역의 맥락에서 융합과 혼성예 의한 추상 이미지가 다루어진다.



17 이정록 - Luca 02 (*라이트박스)

전시장소 청라언덕

18 윤정미

전시장소 청라언덕

윤정미 - It Will Be A Better Day

1920년대에서 70년대까지의 한국 단편 소설(이번 전시는 현진건 작가의 소설을 배경으로 제작되었다)에 나오는 장면들을 작가가 재해석한 연출 사진이다.



19 Wang, Hsiao-Ching, 광범석

전시장소 청라언덕

19-1 Wang, Hsiao-Ching - The Mother as a Creator

2000년에 임신 이후로 어머니가 되는 동안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예술 창작을 시도했다.



19-2 광범석 - 이상화 시리즈

이상화의 시는 저항적 시대정신과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낭만적 상상력을 드러낸다. 절망에서 오는 어둡고 우울한 느낌과 희망이나 아름다운 느낌 등의 복합적인 시적 분위기를 이미지화한다.



20 장용근 - 새부리가면 (*라이트박스)

전시장소 청라언덕

21 이계영

전시장소 3.1운동계단길

실제로 가 보지 않았던 풍경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기억 장치에 저장되고 익숙함을 통해 우리의 감각을 무뎠게 한다.

